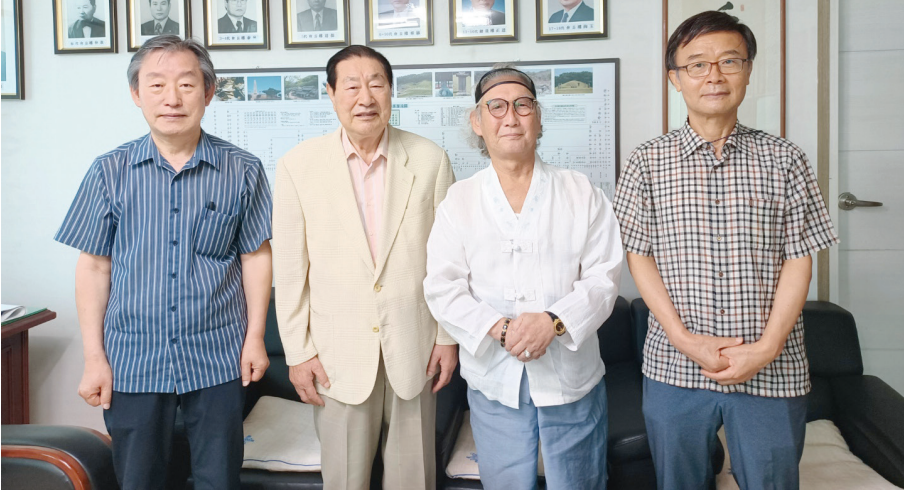


권용만 교수 대중회 방문



권오상 사무총장 직무대행, 권해옥 회장, 권용만 교수, 권갑현 편집위원장(왼쪽부터)

권용만(權容萬, 38세, 부정공파, 54년생) 교수가 대중회를 방문하여 권해옥 회장과 권오상 사무총장 직무대행,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행안 편집국장과 대화를 나눴다. 권해옥 회장은 방문에 주셔서 고맙고 반갑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시고 다방면으로 많은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용만 교수는 뿌리찾기로 씨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쓰다 씨족과 종친회가 생각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안동권씨 대중회를 발견하고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친은 어린 그에게 “너는 소나무씨 같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영향이었을 까 그는 씨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를 평생 화두로 삼고 살았다 한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보니 지행합일(知行合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첫 단계는 말로 드러난다. 그 말은 말씨가 되기 때문에 말씨를 잘 심어야 한다. 웃은 땀씨가 나야 하고, 쓴은 쓴씨가 있어야 하고, 붓으로는 글씨를 쓰고, 불씨로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것처럼 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조들은 대대로 안동시 입암에 세거하다 4대조가 영주 순흥으로 입향했다. 그래서 그는 경상북도 영주가 고향이다. 6살에 천자문을 떴었다. 10살 때부터는 낮에는 지계를 재야만 했고 저녁에는 부친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아가며 소학, 명심보감, 동몽선습 등을 공부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는 논어까지 섭렵할 정도였다. 경북 대학교를 2년 다니다 국비로 미국으로 유학 갔다. 코넬대학교에서 심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중국 북경대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그래서 박사학위만 두 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이다. 이 덕분에 중국 연변대학교,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캄보디아 훈센 왕립대, 필리핀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는 경기도 연천에 거주하며 메디얼 정신건강연구소/메디얼 발효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천향교에서 중용(中庸)을 강의하고 있다. 4년 전부터는 경기북부소방서

와 MOU를 체결하여 ‘철학으로 생각하고 심리학으로 말하자’ 등의 주제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으로 시집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초청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몸은 선천적으로 허약했다. 1997년 고관절 수술을 시작으로 작년에 폐 수술까지 수술대에만 7번이나 올라야 했다. 작년에는 70여 일 만에 폐 수술을 두 번이나 하면서 죽다 살아났다. 의사 말로는 기적이라고 했다.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고 했던가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다. 두 번 죽다 살아나니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뭉실’라고 하듯이 그 뿌리가 보였다. 든든한 뿌리 말이다. 그래서 그는 안동권씨에서 민족의 뿌리 찾기로 흥익인간 이념과 배달의 민족, 단군 성조 등 한국의 인문정신을 키우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안동권씨 종보’를 통해 안동권씨 족친들에게 이런 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생각도 했단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력 있는 안동권씨에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그는 우리 언어에는 깊은 철학이 깃들여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살림, 끌어 올리는 올림, 절림, 땀가에 끌리는 끌림, 올림이 서로 어우러지는 어울림 등만 봐도 말에 철학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연(因緣)이란 ‘나’를 가리키는 인(因)과 ‘나’를 가리키는 연(緣)을 말한다. 서로 관심(關心)을 가지고 세심한 관찰(觀察)을 통해 서로 좋은 관계(關係)를 맺어서 안동권씨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을 버리(綱)로 잡아 팽겨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안동권씨 종보를 통해 전국에 계시는 족친들에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권용만 교수 살아오름”(https://blog.daum.net/heal-life)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안

인터뷰 - 권혁진 박사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면서 어떤 특정 인물과 강원도의 어느 지역과 관계가 되기만 하면 그 지역을 직접 탐방하여 풀 한 포기, 바위 하나, 어느 계곡이라도 그냥 지나침이 없이 낱알이 기록하여 책으로 출판하는 족친이 계시다. 한마디로 흔하디 흔한 주변의 것에서 의미를 찾는 분이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올림이 크다. 춘천에 방문해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주)

문) 권혁진 박사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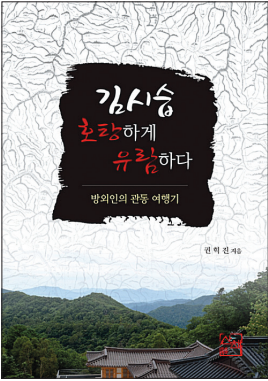
답) 안동권씨 추밀공파 정현공계 목사공(牧使公) 종중 36세 권혁진(權赫鎭)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이고, 지금은 춘천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문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도 10여 년 근무를 했고, 지금은 강원원문고전연구소에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문화원 등에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문) 한문교육을 전공하고 강원원문고전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등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한시(漢詩)와 관련된 선인들의 흔적도 찾아다니고 또 강원도 곳곳을 인문기행을 하면서 수십 권의 책까지 출판하고 계신다고요.

답) 올해 평창 지역의 한시(漢詩)를 소개한 ‘평창풍류여행’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2020년에는 오대산을 노래한 한시를 소개한 ‘오대산 한시를 만나다’와, 동해안의 문화유적을 다룬 ‘관동 800리 인문기행’을 출간했습니다. 2019년에는 오대산을 종합적으로 다룬 ‘오대산의 인문학’을 냈습니다. 그 외에 매월당 김시습의 자취를 살피본 ‘김시습 호랑하게 유람하다’, 정약용의 북한강 여행을 다룬 ‘정약용 길을 떠나다’, 옛 선인들의 설악산 유람을 다룬 ‘설악인문기행1,2’, ‘조선 선비 설악에 들다’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강원의 산하 선비와 유람하다’, ‘춘천화첩기행’, ‘화천인문기행’, ‘춘천의 문자향’, ‘춘주열전1, 2’ 등이 있습니다.

문) 이렇게 강원도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작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습니까.

답)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 현장 위



편집국장 권행안

안동권문 독립유공자 20명 추가 서훈

안동권문의 선조들 중 2021년 7월 현재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에 등록되어 있는 선조는 모두 25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현재 안동권문의 독립유공자가는 모두 236명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다시 조사한 결과 2년 만에 20명이 추가로 추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

장 그리고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단계로 분류하여 수여한다.

안동권문의 독립유공자 256명의 포상 훈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국훈장을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는 모두 160명이다.

3.1운동으로 권동진(서울), 권병덕(충청북도) 선생 등 2명이 1962년 대통령장을 수여 받았고, 중국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권기옥(평안남도

평양) 선생 등 10명이 독립장을 받았으며, 의병활동을 했던 권규섭(경상북도 영천) 선생 등 54명이 애국장을,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펼쳤던 권각(경상북도 안동) 선생 등 94명이 애족장을 수여 받았다. 건국포장은 관대직 선생 등 21명이고, 대통령표창은 권달수 선생 등 75명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말도 못하는 처절한 상황에서 처자식이나 일신의 안위보다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으나 아직까지 추서 받지 못한 선조님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하루빨리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여 서훈받을 수 있도록 족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은 새롭게 추서된 안동권문의 독립유공자 20명의 명단이다. 편집국장 권행안

| 번호 | 성명  | 한자명 | 운동계열  | 포상연도 | 포상훈격  | 생몰          | 본적      | 수훈정보(독립유공자 공훈록) |
|----|-----|-----|-------|------|-------|-------------|---------|-----------------|
| 1  | 권달수 |     | 미주방면  | 2020 | 대통령표창 | 1874 ~ 미상   | 경기도 포천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2  | 권덕구 | 權憲奎 | 문화운동  | 2019 | 애국장   | 1891 ~ 1950 | 경기도 김포  | 25권(2020년 발간)   |
| 3  | 권동수 | 權東錫 | 국내항일  | 2021 | 애족장   | 1914 ~ 미상   | 경상남도 동래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4  | 권간일 | 權萬鎰 | 3.1운동 | 2021 | 애족장   | 1894 ~ 미상   | 황해도 황주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5  | 권묵용 | 權穆龍 | 일본방면  | 2021 | 애족장   | 1909 ~ 1950 | 경상북도 안동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6  | 권병선 | 權丙璇 | 3.1운동 | 2019 | 대통령표창 | 1862 ~ 1938 | 경기도 용인  | 25권(2020년 발간)   |
| 7  | 권봉화 | 權奉和 | 3.1운동 | 2019 | 대통령표창 | 1895 ~ 미상   | 전라북도 전주 | 25권(2020년 발간)   |
| 8  | 권성오 | 權聖五 | 3.1운동 | 2021 | 대통령표창 | 1895 ~ 미상   | 충청남도 아산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9  | 권영구 | 權靈龜 | 3.1운동 | 2020 | 대통령표창 | 1895 ~ 미상   | 함경북도 성진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10 | 권영국 | 權永郁 | 학생운동  | 2021 | 애족장   | 1909 ~ 미상   | 전라남도 목포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11 | 권임상 | 權任相 | 3.1운동 | 2019 | 대통령표창 | 1887 ~ 1942 | 서울      | 25권(2020년 발간)   |
| 12 | 권재갑 | 權再甲 | 3.1운동 | 2020 | 대통령표창 | 1900 ~ 미상   | 경상북도 달성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13 | 권재길 | 權在吉 | 3.1운동 | 2020 | 애족장   | 1900 ~ 미상   | 전라북도 군산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14 | 권중원 | 權重遠 | 의병    | 2019 | 대통령표창 | 1860 ~ 1910 | 전라북도 장수 | 25권(2020년 발간)   |
| 15 | 권태구 | 權泰圭 | 국내항일  | 2019 | 애족장   | 1910 ~ 1957 | 경상북도 봉화 | 25권(2020년 발간)   |
| 16 | 권태용 | 權泰用 | 국내항일  | 2019 | 애국장   | 1906 ~ 1933 | 서울      | 25권(2020년 발간)   |
| 17 | 권태호 | 權泰鎬 | 학생운동  | 2020 | 애족장   | 1905 ~ 미상   | 경상북도 봉화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 18 | 권한정 | 權漢鼎 | 3.1운동 | 2019 | 대통령표창 | 1869 ~ 미상   | 경상북도 영양 | 25권(2020년 발간)   |
| 19 | 권한상 | 權憲尙 | 국내항일  | 2019 | 애족장   | 1919 ~ 미상   | 경상북도 봉화 | 25권(2020년 발간)   |
| 20 | 권호기 | 權鎬基 | 3.1운동 | 2020 | 대통령표창 | 1901 ~ 1960 | 경상북도 봉화 | 미발간(2021년 발간예정) |

동정

▲권영현 인천 강화군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이 7월 12일 제37대 부군수에 취임했다. 권영현 부군수는 1989년 인천

부평구 부평3동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2009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장, 인천시 교육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장,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등을 거쳐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권 부군수는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행정가이자 일자리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권 원장은 한국 풍력학회 논문상(2011년) 수상, 울산광역시장 표창

(2020년) 수상, 에기평 풍력PD로 5년간 근무하는 등 풍력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버풀대 전기공학 석박사 학위를 마쳤다. 이후 효성중공업에 입사해 풍력사업단 상무를 역임했다.

▲권오득 전 한국전력 대구지역본부장이 한전 KDN 신임 ICT사업본부장에 취임했다. 권 신임 본 부장은 1961년생으로 안

동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후 배전운영처장, 대구지역본부장 등 보직을 거친 전력배전 현장에 잔뼈가 굵은 배전분야 현장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전 배전운영처장 재임시 최초의 정전 없는 올림픽이었던 평창동계 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 있다.

▲권영익(權寧翼, 34세)씨가 추밀공파 목사공(牧使公) 종중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권영익 신임 회장은 (주)삼영기계

를 창업하여 지난 35년간 운영하다 2010년 회사를 사회에 환원하고 은퇴한 이후 2015년부터 목사공 종중 총무를 맡아왔다.

▲권영현(추밀공파 정현공계 목사공 종중)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융합대학 응용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고전적 선택이 양자정

보적 성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지난 25일 한양대학교는 밝혔다. 양자 세계는 양자 물리학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세계로,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물리계이다. 이 물리계를 어떤 고전적 확률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특별한 상황(얽힘 없는 비국소성)이 나타날지 결정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양자암호나 양자컴퓨터 등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익씨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신임 사무처장으로 지난 5일 취임했다. 권영익 신임 사무처장은 충남 예산 출생으

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7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했으며 본사 정책지원본부 총무회계팀장·재무관리실 재무팀장·서울동부혈액원 총무팀장·본사 감사실 감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권이철 신임 김포시 하성면장이 주민이 최초로 직접 추천한 면장으로 취임했다. 김포시는 공약사항으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를 시범으로 추진해 왔다. 권이철 면장은 부임 후 첫 면정을 읍·면·동 현장 행정 대상지인 마조2리 도로제포장 사업, 마곡3리 배수로 정비사업 그리고 매년 장마철 침수지역인 원산2리와 하사리를 현지답사 하면서, 재난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도쿄 올림픽 출전 안동권문의 아들과 딸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본 도쿄 올림픽(2021.7.23.~8.8)에 출전하고 있는 안동권문의 아들과 딸들은 다이빙에 권하림 선수, 사격에 권은지 선수, 축구에 권창훈 선수, 테니스에 권순우 선수, 펜싱에 권영준 선수 등 5명이다.

권하림 다이빙(광주광역시) 권은지 사격(19, 울진군청) 권창훈 축구(수원 삼성)



권순우 테니스(당진시청)

권영준 펜싱(익산시청)

